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둘째 논고 · 히브리어·헬라어 본문의 순수성과 온전함 1~2장(요지용)

존 오웬, 『성경의 히브리어·헬라어 본문의 온전함과 순수성에 관하여 — 최근의 「대역 성경」 서론과 부록에 대한 고찰』(1659.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에 덧붙인 둘째 논고). 편집자 머리말과 1~2장. 굴드판 전집 16권, 345~362쪽 무렵.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첫째 논고를 다 쓴 뒤 월턴의 『런던 대역 성경』을 받았습니다. 부록에 실린 엄청난 분량의 이문(사본마다 다르게 적힌 읽기) 목록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자기가 앞서 세운 두 주장, 곧 '하나님이 섭리로 원문을 보존하셨다'는 주장과 '성경은 스스로 신적 기원을 드러낸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쓰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키려는 명제를 밝히고, 대역본 서론에 담긴 다섯 가지 위험한 원칙을 짚습니다. 2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원본(자필본)은 사라졌고 필사자는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경건한 정성 아래 말씀 전체가 원어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보존되었다고 오웬은 말합니다. 실제로 있는 이문은 사소하다고 인정합니다. 끝으로 '유대인이 본문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대표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해 물리칩니다.

📜 절별 정리

📜 1. (편집자 머리말) 오웬은 대역 성경의 적이었나

이 절은 오웬이 아니라 굴드판 편집자의 글입니다. 편집자는 오웬이 '대역 성경을 반대해 쓴 사람'으로 알려진 것이 오해라고 말합니다. 오웬은 대역본을 “고귀한 모음집”, “그로 유익한 작품”이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실제 논쟁거리는 두

사본 대조로 새 이문이 나오면 “고려할 만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훗날 (1710년) 공인 본문의 모든 단어가 원래 그대로라고 고집한 휘트비보다 온건했습니다. 오웬이 반대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소한 차이를 쓸데없이 불리는 것, 카펠루스처럼 번역본만 근거로 원문을 고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추측으로 본문을 고치는 것입니다. 편집자는 원칙 면에서는 월턴이 오웬보다 앞서지 않았고, 사실 면에서는 오웬이 오히려 우세했다고 평가합니다. 둘째는 히브리어 모음점(자음 글자에 붙여 모음을 표시한 점과 부호)이 원래부터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웬은 모음점도 본문만큼 오래되고 거룩하다고 보았습니다. 편집자는 이것을 오류로 봅니다. 다만 북스토르프 부자, 보에티우스, 라이트풋 같은 훌륭한 학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덧붙입니다. 편집자는 오웬이 서두르고 예민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웬의 가정법 문장을 단정으로 바꾸어 공격한 월턴의 반박 방식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 오웬은 대역본을 칭찬했다
2. 이문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리엔 영향 없다 함
3. 반대는 번역본 근거 교정과 추측 교정
4. 모음점의 오래됨 주장은 오류(편집자 판단)
5. 서두름은 흠, 월턴의 반박도 공정치 않았다

> “오웬은 읽기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 때문에 치명적 영향을 받은 교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했다.” (편집자의 말)

📜 2.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 원문이 훼손되었다는 가정의 위험

첫째 논고를 인쇄소에 넘기려던 참에 대역본의 서론과 부록이 오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록의 방대한 이문 목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학식 있는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웬은 첫째 논고 1장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원문을 보존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록이 그 주장을 반박하는 무기로

가정을 토대로 삼았습니다(오웬은 쿠란 5장을 든다). 로마 교회에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깎아내리는 광신자들에게는 유일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밖의 '내적 빛'을 앞세우는 열광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숨은 무신론의 뿌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신적 믿음』이라는 라틴어 제목의 영어 익명 소책자가 바로 이 근거로 성경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려 했습니다. 오웬은 대역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섭리적 보존 논증뿐 아니라 자증 논증까지 약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접든지 응답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고, 응답하기로 합니다.

1. 첫 논고 탈고 직후 대역본을 받았다
2. 방대한 이문 목록이 첫 반응을 일으켰다
3. 훼손 가정은 이슬람·로마·광신·무신론의 근거
4. 섭리적 보존과 자증 논증이 함께 걸려 있다
5. 출판을 멈추고 먼저 검토했다

"원본에 훼손이 생겼다는 가정은 이슬람의 토대요, 교황주의의 주된 버팀목이요, 광신적 반성경주의자의 유일한 핑계요, 세상에 숨은 많은 무신론의 뿌리다."

📜 3. 대역 성경을 존중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오웬은 전도서 4:4를 인용합니다. 좋은 일을 애써 해내면 이웃의 시기를 받는 일이 흔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히에로니무스가, 근래에는 에라스뮈스가 그런 예였습니다. 오웬은 자기에게 그런 시기가 없다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서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셋입니다. 자신은 그 분야의 깊은 학식이 있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역본과 경쟁할 일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책임 편집자가 누군지도 그 책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 일부 편집자를 알게 되었다고 각주에서 덧붙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작품의 유익과 편집자들의 수고를 칭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같은 자유로, 그리스도인다운 솔직함과 절제로 생각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대역본의 아랍어 번역 서문은 오경을 아랍어로 옮긴 유대인 번역자가 자기 견해를 번역 본문에 끼워 넣었다고 지적합니다. 오웬은 대역본이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출판할 때 본문과 번역, 그리고 꼭 필요한 역사적 설명만 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개인 견해를 끼우면 정경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권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1. 시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역본의 유익과 수고는 칭찬한다
3. 문제는 성경 곁에 실린 사적 견해다
4. 정경 곁에 놓이면 견해가 권위를 얻는다
5. 그리스도인다운 솔직함과 절제로 말한다

> **전도서 4:4**
>
> 좋은 수고가 시기를 부르는 세태. 자기는 그런 시기에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해명의 출발점
>
>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성경을 출판하면서 본문 곁에 개인 견해를 위한 논쟁을 실으면, 그 견해는 정경의 진리와 늘 이웃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친 무게를 얻는다.”

📜 4. 지키려는 명제와 그 무게

오웬은 변호할 명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온전히 주셨습니다. 일점일획이라도 바꿀 수 있는 중간 경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선한 섭리로 처음 주신 말씀 전체를 원어 안에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셋째, 그 말씀은 원어 안에서, 그리고 원문을 충실히 옮긴 모든 번역 안에서 스스로의 빛으로 빛납니다. 다른 외부의 도움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에 대한 우리의 몫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때 말씀을 주셨더라도 그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처음 받은 옛 세대만 복되고, 우리는 어느 책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어느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오웬은 그런 생각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과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1. 직접 주심·섭리적 보존·자증, 세 고리
2.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3. 보존되지 않으면 계시도 우리에겐 소용없다
4. 번역도 충실한 만큼 그 빛을 지닌다
5. 근거는 말씀과 영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 **이사야 59:21**
> 내 영과 내 말이 네 자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언약. 보존 교리의 중심 근거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마태복음 5:18**
>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글자 하나까지' 보존된다는 주장의 근거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베드로전서 1:25**
>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의 지속성
>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8:20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 교회와 함께하시는 돌보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다서 1:3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명제들을 믿음의 기초로 여기는 표현(장절 표기 없이 문장으로 빌려 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나님이 한때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 한들, 그 말씀이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 말씀과 영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기초를 불확실 속에 버려두셨다는 생각은 선한 사람에게서 멀어야 한다.”

📜 5. 대역 성경 서론의 다섯 원칙과 그것을 문제 삼는 이유

오웬은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론은 원문을 높이 평가합니다. 원문을 어떤

함께 보면 위험한 원칙 다섯이 있습니다. ① 히브리어 모음점과 악센트는 복음 이후 500~600년 무렵 유대 랍비들이 새로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몇몇 번역본이 모음점보다 오래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음점이 찍힌 본문으로는 그 번역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우리의 읽기와 해석은 모음점을 만든 유대인들의 신실함과 솜씨에만 기대게 됩니다. ② 800개가 넘는 '케레와 크티브'(본문에 적힌 대로의 글자와 여백에 '이렇게 읽으라'고 단 글자)를 랍비들이 옛 사본에서 모으거나 비평적으로 고친 이문으로 봅니다. 게다가 이를 '이런 비밀의 원조'인 카펠루스의 분류로 한 번 더 싣습니다. ③ 원문에 생긴 변화를 옛 번역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번역본에서 이문을 거꾸로 추정해 모읍니다. ④ 원문에 큰 잘못이 있으면 학자의 추측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본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로티우스의 추측 이문 모음을 싣습니다. ⑤ 이문들을 맨몸으로 잔뜩 늘어놓아 섭리적 보존에 대한 의심을 낳습니다. 오웬은 이것들이 새 주장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개인 저술 속의 견해였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셈할 것이고, 기초 위에 짚과 풀을 쌓더라도 구원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이 대역본의 권위에 기대어 보편적 기준처럼 퍼질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따로 보면 학자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묶이면 진리를 허무는 기계가 되고 무신론자의 손에 쥐여 준 무기가 됩니다. 결국 문 앞에 남는 것은 '무오한 재판관'(로마 교회)이거나 무신론이라고 오웬은 경고합니다. 이는 원수가 반길 일입니다. 다만 그 책임을 편집자들에게 돌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1. 서론은 원문을 번역보다 앞에 둔다(칭찬)
2. 문제: 모음점 후대설, 케레·크티브 이문설
3. 문제: 번역본·추측으로 원문을 고침
4. 대역본의 권위를 업고 퍼지는 것이 위험
5. 결국 로마의 재판관이나 무신론으로 간다

> **로마서 14:12**
>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개인 견해는 개인의 책임에 맡긴다(문장만 빌려 씀)
>
>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로마서 14:5

각자 마음에 확정할 것. 사적 견해의 자유를 인정(문장만 빌려 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들을 한데 묶어 지금 누리는 유리한 자리에 놓고 보면, 나는 그것을 앞서 변호한 중요한 진리를 허무는 데 알맞은 기계로 볼 수밖에 없다."

📜 6. 자필본은 사라졌다 — 모세의 책과 신약의 첫 사본

2장에서 오웬은 자기가 무엇을 변호하는지 정확히 정의합니다. 먼저 인정할 것을 인정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직접 쓴 자필본(저자가 처음 기록한 바로 그 문서)은 사라졌습니다. 에스라의 사본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다는 소문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잉크와 양피지는 기적 없이는 지금까지 남을 수 없습니다. 오웬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원본이 남았다면 사람들은 유대인이 회당의 두루마리에 하듯 그것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원본을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점일획을 지키시는 그분의 섭리를 더 가까이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레위인에게 주어 언약궤 곁에 두게 했습니다(신명기 31:25-26). 오웬은 그 책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 때 회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옮겼다는 기록(역대하 5:4-5)이 그 근거입니다. 요시야 때 힐기야가 찾은 책(역대하 34:15)이 모세의 원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웬은 성전 예배에

수리하다가 그 책을 찾았고, 지성소에 둔 원본이었다면 대제사장인 그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전 파괴 뒤로 그 책을 찾는 일은 헛됩니다. 마카베오기하에 예레미야가 언약궤와 제단을 느보산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책을 숨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의 자필본은 한 권으로 모인 적이 없어 보입니다. 서신들은 받은 교회에 보관되었고 곧 다른 교회를 위해 필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16). 사도 시대에 성령의 특별한 인도가 아직 있을 때 이미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본들이 전해졌습니다.

1. 자필본은 모두 사라졌다(인정)
2. 원본을 잃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3. 남았다면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
4. 모세의 책은 성전 파괴 때까지 보존
5. 신약 사본은 사도 시대부터 널리 퍼짐

> **신명기 31:25-26**
>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함. 원본 보관이 하나님의 규례였음
>
>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 **역대하 5:4-5**
> 성전 봉헌 때 회막과 기물을 다 옮김. 율법책도 함께 보존되었으리라는 추론
>
> 4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5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 **역대하 34:15**
>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 이 책이 원본이 아니라 성전 사본이라는 논증의 재료
>
>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서신을 다른 교회에서도 읽게 함. 신약 문서가 곧바로 필사·회람되었다는 증거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디모데후서 2:2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첫 사본들이 믿을 만한 손에 맡겨짐(원문 표기 '2:1'은 2:2의 착오로 보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원본을 잃게 하심으로, 그 안에 담긴 일점일획까지 보존하시는 그분의 돌보심과 섭리를 우리가 더 가까이 생각하게 하려 하셨던 것 같다."

"그 원본들이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유대인이 회당의 두루마리에 하듯 그것을 숭배하려 했을 것이다."

📜 7. 필사자는 영감받지 않았다 — 그러나 비할 데 없는 정성

모리누스와 카펠루스는 개신교가 필사자들을 '무오하고 영감받은 자'로 여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웬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필사자들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거기서 이문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웬이 필사자에게 돌리는 것은 경건한 정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상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입니다. 이 정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쓰임 받아 보존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은 호메로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를 베낀 필경사의 부주의를 성경 필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웬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비교라고 말합니다. 성경 필사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와 남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눈이

아셰르가 여러 해에 걸쳐 성경을 정밀하게 필사했다고 전합니다. 랍비들은 글자 하나가 빠지거나 하나가 더해지는 것을 포함해 사본을 부정하게 만드는 스무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제사장들도 시빌라 신탁을 옮길 때 한 획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웬은 아리아스 몬타누스의 증언도 인용합니다. 헬라어·라틴어 고전 사본들은 여기저기 크게 다른데,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은 모음점이 있든 없든 놀랍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필사 과정에서 다른 책들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웬은 그런 주장이 무신론에 가깝다고까지 말합니다. 실수는 증명되는 만큼만 인정하겠습니다. 증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 필사자의 무오를 주장한 적 없다
2. 필사 실수와 이문의 존재를 인정
3. 돌리는 것은 경건한 정성과 경외뿐
4. 고전 필사와 같다는 비교는 부당
5. 실수는 증명된 만큼만 인정한다

> “우리가 필사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경건한 정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상대하시는 분에 대한 마땅한 경외뿐이다.”

> “그들의 실수는 증명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에서 증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8. 원어 사본 안에 말씀 전체가 보존되었다 — 열두 가지 근거

오웬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성경 전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지금 남은 원어 사본들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본들 사이의 차이는 뒤에서

오직 원어 사본으로만 바로잡습니다. 번역은 원문의 말과 뜻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역을, 그것도 여러 번역이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원문과 같은 자리에 세우거나 원문을 고치는 데 쓰는 일이 있습니다. 오웬은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 우리의 제단을 세우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같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리누스는 오리게네스가 다국어 대조본에서 칠십인역(기원전에 만들어진 구약의 헬라어 번역)을 가운데 두어 히브리어까지 바로잡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웬은 이를 어리석은 추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어를 첫째 칸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오웬은 근거를 열두 가지로 간단히 꼽습니다.

① 이름보다 높이신 자기 말씀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② 말씀을 맡은 교회의 경건한 돌봄

③ 첫 저자들이 여러 사람에게 정본 사본을 나누어 준 일

④ 사본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전부를 훼손할 수 없었던 사정

⑤ 회당과 교회가 정본을 경외하며 보관한 일

⑥ 온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읽고 연구해서 어떤 변경이든 곧바로 드러났을 것

⑦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의 글자를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유산으로 여긴 일

⑧ 에스라와 대회당 사람들이 포로기 뒤 사본이 적을 때 본문을 순수하게 회복한 일

⑨ 마소라 학자들(본문의 글자 수까지 세며 전수한 유대 학자들)의 정밀한 관리

⑩ 모든 사본이 일치한다는 사실. 미쉬나와 탈무드 어디에도 지금과 다르게 인용된 성경 구절이 없다

⑪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잘못된 해석은 꾸짖으셨지만 본문 훼손을 꾸짖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오웬은 이를 히에로니무스가 전하는 오리게네스의 말로 뒷받침한다)

⑫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감시해 온 일

2. 원어 사본이 모든 번역의 기준이다
3. 번역은 충실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다
4. 번역으로 원문을 고치면 제단 곁의 제단
5. 섭리·교회·사본 수·감시 등 열두 근거

> **시편 138:2**
>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씀을 돌보시는 섭리의 근거(문장만 빌려 씀)
>
>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 **로마서 3:2**
>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보존의 책임이 맡겨진 공동체(문장만 빌려 씀)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마태복음 5:18**
> 일점일획. '모든 글자와 획'이라는 표현의 배경(4절에서 인용)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번역은 원문의 말과 뜻을 표현하는 만큼,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번역을 원문과 대등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우리 자신의 제단을 쌓는 일이다.”

오웬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이문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케레와 크티브가 있습니다. 벤 아셰르와 벤 납달리라는 두 마소라 학자의 읽기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바벨론) 유대인과 서방(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읽기 차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펴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봄베르크판 랍비 성경과 바젤의 북스토르프판 끝에도 실려 있습니다. 오웬은 벤 아셰르와 벤 납달리가 1030년 무렵 활동했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이보다 이르게 보는 편이다). 이들의 차이는 대부분 뜻에 아무 영향도 없는 악센트 문제라서 주목할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동방·서방 읽기는 그 기원을 자신도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다만 그 사소함은 내용 자체가 말해 준다고 합니다. 본문의 권위를 깎는 데 누구보다 능했던 카펠루스조차 이 차이들이 모두 하찮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웬은 이것 말고 구약에 다른 이문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추측은 '이문'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뢰할 만한 옛 사본에서, 실수로 설명되지 않는 이문이 나온다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열어 둡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실례로 다루어야 합니다.

1. 케레·크티브 등 구약 이문을 인정
2. 대부분 뜻과 무관한 악센트 차이
3. 카펠루스도 사소하다고 인정
4. 추측은 '이문'의 자격이 없다
5. 옛 사본에서 나온 새 이문은 고려할 만함

“여기서는 추측이 아니라 실례로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비로운 섭리로 교회를 위해 보존된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남아 있다.”

📜 10. 유대인은 본문을 훼손하지 않았다 — 대표 사례 검토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 논객, 특히 갈라티누스는 유대인이 성경을 고의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웬은 그럴듯해 보이는 사례 세 가지를 검토하고 모두 물리칩니다.

첫째 사례는 '서기관 교정'(티쿤 소프림, 마소라가 열여덟 곳에 붙인 '서기관이 고쳤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교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불확실합니다. '서기관'이 누구인지도 불확실한데, 에스라와 그 동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해당 구절들에서 교정의 흔적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오웬은 이 주제의 대가인 북스토르프가 글라시우스에게 보낸 편지를 길게 인용합니다. 북스토르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탈무드는 사소한 서기관 관습까지 기록하지만 이 교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글자가 바뀌었다면 아람어 번역인 온켈로스와 요나단 역에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에서 유대인이 율법의 글자 하나도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탈무드 학자들은 레위기 27:34를 근거로 선지자라도 율법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서기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북스토르프의 결론은 이 '서기관'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 읽히는 대로 썼습니다. 후대 현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경 때문에 표현을 바꾸어 썼다”고 해설을 단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22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셨다”고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 걸맞지 않아 모세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서기관 생략'(이투르 소프림, 접속사 글자 '바브'를 넣거나 빼는 네댓 곳)도 같은 성격이라고 오웬은 봅니다.

둘째 사례는 시편 22:16입니다. 칠십인역은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로 옮겼습니다. 지금의 유대 사본과 안트베르펜 성경은 “사자같이 내 손과 발을”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리스도의 고난 예언이 흐려지고 문장도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갈립니다. 유대인이 최근에 고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티브(쓴 글자)이고 다른 하나가 케레(읽는 글자)라는 견해도 있는데, 북스토르프가 마소라로 이를 증명했다고 오웬은 전합니다. “사자같이”를 살리고 앞의 동사 '에워쌌다'를 되풀이해 읽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웬은 이 단어가 '사자같이'로 옮겨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마소라가 이 단어는 이사야 38:13(“사자같이”)과 다른 뜻으로 쓰였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파다·찌르다'를 뜻하는 동사의 한 형태로 보고 “그들이 찔렀다”로 읽는 것이 가장

셋째 사례는 시편 96:10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유대인이 “주께서 나무로부터 다스리신다”에서 '나무로부터'(십자가를 가리키는 말)를 지웠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웬은 이것이 모두에게 이미 배척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칠십인역의 문제이고, 그 말은 몇몇 칠십인역 사본에 덧붙여졌을 뿐 널리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아리아스 몬타누스의 일화도 소개합니다. 한 학자가 영국에 있는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 시편 사본에 그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상 그 사본을 손에 넣어 보니 새로 만든 조잡한 사본이었고, 문제의 말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오웬은 신약의 공인 읽기에 맞서 내세워지는 사본들도 따져 보면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장을 맺습니다.

1. 서기관 교정 18곳은 실제 변경이 아니다
2. '서기관'은 거룩한 저자 자신(북스토르프)
3. 시편 22:16은 '찔렀다'가 바른 읽기
4. 시편 96:10 '나무로부터'는 칠십인역 첨가
5. 반대 사본도 따져 보면 근거가 약하다

> **창세기 18:22**
> 서기관 교정의 대표 예. 고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외심으로 그렇게 썼다는 설명
>
>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 **민수기 12:12**
> 마소라의 교정 목록에서 한 절에 두 예가 있는 곳(북스토르프의 인용)
>
>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 **시편 106:20**
> 마소라가 교정 목록을 실은 자리 가운데 하나(원문은 '시편 106'만 표기)
>
>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 **욥기 32: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레위기 27:34

탈무드 학자들이 선지자라도 율법을 바꿀 수 없다는 근거로 든 구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편 22:16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대 “사자같이”. 훼손 시비의 핵심 사례(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2:17)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사야 38:13

마소라가 '사자같이'의 정상 용법으로 대조하는 구절. 시편 22편의 단어가 다른 뜻임을 보이는 근거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에스라 10:44

시편 22편 단어에 상정한 것과 같은 종류의 철자 변화 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시편 96:10

'나무로부터' 삭제 시비. 히브리어가 아니라 일부 칠십인역 사본의 첨가임을 보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읽히는 것과 다르게 쓴 적이 없다.” (오웬이 인용한 북스토르프의 말)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필본(원본)
모세나 바울 같은 저자가 처음 직접 쓰거나 받아 적게 한 바로 그 문서.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본
자필본을 손으로 베껴 쓴 책.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사본들을 모아 대조해서 얻습니다.

이문(다른 읽기)
같은 구절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힌 것.

대역 성경(『런던 대역 성경』)
브라이언 월턴이 펴낸 여러 권짜리 성경. 히브리어·헬라어 원문과 옛 번역들을 나란히 실었고 1650년대에 완간되었습니다. 첫 권에 긴 서론이, 끝 권에 이문 부록이 있습니다.

모음점
자음만 쓰는 히브리어에 모음과 억양을 표시하려고 붙인 점과 부호. 언제 생겼는지가 17세기의 큰 논쟁이었습니다.

마소라와 마소라 학자
히브리어 성경을 글자 수까지 세어 가며 정확히 전한 유대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본문 여백에 단 메모.

케레와 크티브

서기관 교정(티쿤 소프림)
마소라가 '서기관이 고쳤다'고 표시한 열여덟 곳. 오웬은 실제 변경이 아니라 후대의 해설이라고 봅니다.

추측 교정
사본 근거 없이 학자가 '원래 이랬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문을 고치는 일.

섭리적 보존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역사와 사람의 정성을 통해 처음 주신 말씀을 지켜 오셨다는 가르침.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원본은 사라졌고 필사자는 틀릴 수 있었다. 오웬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먼저 인정한다.
- 그럼에도 하나님은 섭리와 사람의 경건한 정성을 통해 말씀 전체를 원어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보존하셨다.
- 원어 사본이 모든 번역의 기준이다. 번역이나 추측으로 원문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같게 놓는 일이다.
- 실제 이문은 사소하며, 유대인이 본문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대표 사례들은 근거가 없다.
- 이 보존이 무너지면 계시도 자증도 우리에게 쓸모없어진다. 그래서 보존은 믿음의 기초에 속한다.

📖 이 장을 쓰는 법

- 성경론 19편 ·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